

# 가계 비상금 소유에 관한 연구

## Emergency Fund Level of Households

계명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배 미 경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강 사 박 선 영  
건국대학교, 생활문화대학,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이 승 신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full time lecturer* : Bae, MiKyeong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Family Studies HanYang University

*lecturer* : Park, Sun Young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ousing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Seung Si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Emergency funds are usually identified as liquid assets because they are easily and quickly converted to cash for the needs of unexpected expenses. Empirical studies applied for American Households have found that most households do not have recommend levels of liquid savings and an analysis of the 1990 survey of consumer expenditures confirms revious findings.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is the data base for this study and the level of emergency fund as a flow asset is investigated. A three period model of optimal consumption is presented. The results suggest that many consumers who do not have the recommend levels of liquid assets may be acting rationally. The results may be useful for financial counselors and educators, as well as for insight into empirical patterns of savings.

## I. 문제제기

가계비상금이란 대체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시 빠르고 쉽게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Johnson 과 Widdows, 1985; Prather, 1990). Garman과 Forgue(1991)는 특정한 가계의 상황에 따라서, 즉 직장 또는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가계가 소유해야하는 비상금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소득손실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직장이나 배우자가 직장을 갖고 있을 때 또는 충분한 크레딧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금소유정도가 적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경제학자들이나 가계재무상담자들은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계획을 위한 방침으로, 자신의 현재 소비지출수준을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추천하고 있다(Johnson과 Widdows,1985; Prather,1990).

Hanna, Chang, Fan과 Bae (1993)는 미국소비자들의 유동 자산 소유실태를 파악한 연구결과에서 표본가계의 80%는 6개월 비상금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와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재무관리가 부실한 가계를 선정해서 면밀히 조사 검토해 보는 것이 재무관리의 미래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미국가정은 가계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얼핏보면 미래에 대한 재정적 준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3분기 모델의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을 비추어 볼 때에 소비자는 미래 소득이 감소될 확률에 따라서 비상금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즉 다음분기의 소득이 50% 감소할 확률이 100%일 때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음분기 소득감소가 50% 미만일 때는 비상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재무관리로 간주 될 수 있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내적인 필요보다는 가계의 자원(인적, 물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정의 비상금 소유실태를 파

악하고, 비상금소유정도를 위해 최적의 저축액(optimal saving) 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3분기 소비지출 모델을 적용하여 비상금과 관련된 저축보유액, 자산보유상태, 그리고 비상금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심리학적인 변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가계의 저축보유실정, 자산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재무상담자들이 유사시 가계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추천하고 있는 6개월간의 비상금 소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등으로 말미암은 불안정한 경제현상에 비추어 유동자산으로 여겨지는 비상금 소유와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 1) 이론적 틀

최적의 저축액(optimal saving)과 소비지출액에 대한 무기한 모델, 2분기, 3분기모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Leland, 1968; Levhari와 Srinivasan, 1969; Sandmo, 1970; Mirman, 1971; Hey, 1979; Sibley, 1975; Salyer, 1988). 2분기 모델에서는 소득과 이자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무한·유한분기모델에서는(infinite, finite) 개인의 수명기간으로 간주되는 할인률이(discount rate) 저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고, 이때 소득과 이자율은 고정된 것으로 본다. Leland(1968)는 불확실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2분기 모델을 사용했다. Sandmo(1970)는 미래소득에 대한 위험부담의 증가가 현재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2분기 모델을 도입하여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며 저축이 증대한다고 증명했다. Sibley(1955)는 미래에 대한 위험부담의 증가로 최적의 저축을 예비하는 2분기 모델을 전개했다. 그는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저축은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효용방정식의 3차미분의 값이 정적이거나 부적인 것에 달려있으며 이것은 최적의 저축액이 소득불확실성에 따라서 증가함

을 보여준다. 이와같이 종래 연구에서는 저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설명으로서 위험부담 거부도(risk aversion), 이자율, 소득, 소득성장률등을 동시에 한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는 3분기 모델을 사용해서 최적의 저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Kinsey와 Lane (1978)이 지적하기를 소비지출이 소비자 크레딧(credit)을 포함할 때는 효용의 극대화를 좀더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해야하며 소득, 소비, 그리고 저축의 재분배에 관하여는 가족생활주기모델 접근방법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분기 모델은 매우 복잡하고 실용화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3분기모델이 적절하며, 이것은 또 위험부담 거부도란 변수를 포함해서 2분기 모델보다 설명력이 있다고 본다. 3분기 모델에서는 적절한 저축 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순소득의 성장기대치율(expected growth rate), 미래소득의 변량, 순이자율, 개인의 할인율(discount rate)등을 포함시키는 총효용방정식을 포함한다. 3분기 모델을 이용한 총효용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3분기 모델: 총 효용 방정식〉

$$T=U(C_1)+\frac{PU(C_2)+(1-P)U(C_2)}{(1+p)}+\frac{PU(C_3)+(1-P)U(C_3)}{(1+p)^2}$$

(1)→총 효용방정식

P=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p=개인의 할인율, I:소득, r:실 이자율, g:소득 성장률

$C_1=I-S_1$  (2)→ $C_1$ :1분기 소비지출  $S_1$ :  
1분기 저축액

$C_2=(1+g)I + (1+r)S_1 - S_2$  (3)→ $C_2$ :2분기 소비지출  $S_2$ :  
2분기 저축액

$C_{2a}=I + (1+r)S_1 - S_2$  (4)→ $C_{2a}$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의 2분기 소비지출

$C_3=(1+g)I + (1+r)S_2$  (5)→ $C_3$ :3분기 소비지출

$C_{3a}=I + (1+r)S_2$  (6)→ $C_{3a}$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의 3분기

소비지출

$U=C^x(1-x)$

(7)→상대적 위험거부도 측정(relative risk aversion)

3분기 동안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를 가정하면, 저축액은 1분기 소득이 결정된 후에 결정되며 2, 3분기의 소비함수에는 2, 3 분기의 순소득과 소득성장률, 소득이 증가하는 확률, 또 저축에 대한 이자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미래 소득의 감소를 대비한 다기 보다는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내구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등의 동기에서 유발된다. 본 연구는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동기로서 미래 소득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총 효용방정식에서 개인 할인율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생명기간을 계산하며 미래의 총 소비 효용 방정식을 구상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즉 젊은 층은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서 미래의 소비를 할인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저축과 크레딧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할인율(personal discount rate)이 침가될 경우 실 이자율(real interest rate)이 감소되어 방정식에서 이자율은 r 이 아니고 r-p가 된다.

3분기 모델중 상대적 위험 거부도의 설명으로 식 (7)에서 x가 높을 수록 소비자는 위험부담을 싫어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자산이 증가할수록 한계효용은 급속히 적어진다. 불확실성(uncertainty)에 관한 경제적 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 최적의 저축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주어졌을 때와 주어지지 않을 때를 설명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총효용방정식에서 미래의 소득에 대한 감소가 확실할 경우와 불확실할 경우를 나누어 현재 소비와 저축액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가계 비상금 소유 정도는 소비자가 얼마만큼 미래 소득에 대한 증감을 스스로 인지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2) 비상금 소유와 저축

우리나라의 가계저축은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의 증대에 힘입어 1971년 GNP대비 2.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79년에는 11.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가 악화됨에 따라 1980년에는 1979년의 절반수준인 6.6%로 급락했었다. 그후 경기회복 및 물가안정, 금융자유화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가계저축이 점차 증대되기는 했으나, 1985년중 여전히 10.6%로 기업저축률을 4.1%나 밀두고 있는 실정이다(금융경제, 1991). 최근 가계저축률이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동자산인 비상금 소유정도는 이러한 저축률 하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축행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및 소득의 규칙성, 자산상태 및 주택소유여부, 가계생활주기, 생활방식 및 소비습관, 불확실성 효과 등을 들 수 있다(문숙재, 1985; 이행숙, 1992; 최성열, 1984; 채정숙, 1980; 이민표, 1985). 이밖에 가계저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는 소득과 자산, 교육수준, 직업, 주요 저축목적 등을 들 수 있다(고남욱, 1983; 채정숙, 1980). 가계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를 위해 쓰여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의 가계저축은 일반적으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국한된다.

저축률은 현재에 저축한 것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것과 가계들이 현재의 소비에 비해 미래의 소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저축률은 오랫동안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미래에 대한 경제적 계산을 불확실하게하여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게 하였다(이행숙, 1992).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1)가 주부의 경제의식 및 저축환경조사에서 주부의 대부분이 저축이나 투자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부(78.3%)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응답을 했고 부동산 가격의 등위가 일반주부의 금융기관 저축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자의 가계저축률을 보

면 매월 총수입 중 평균 가계저축률은 27.7%로 나타났고 주부들이 저축 또는 투자를 하는 주요목적은 주택구입 및 자녀교육비 마련, 노후설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가계를 대상으로 Johnson과 Widdows(1985)는 1977년에 비해 1985년에 비상금을 소유하는 가계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이 원인을 거시경제적인 요소가 가계의 저축보유액과 관련이 있음을 말했다. 소득과 비상금 보유정도는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밝혀졌고, 가정생활주기와 비상금 소유정도의 횡적 접근을 통해서, 가정생활주기로별로 보아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비상금 보유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 Survey of Consumer Finance는 소비지출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을 소비지출의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저축과 비상금소유정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저축률의 하락이 비상금 소유의 하락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거시적인 요소 즉 국민경제 전반에 관련된 부분과 미시적인 요소 즉 가계내의 인구 사회학적인 변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짐을 볼 수 있다.

### 3) 비상금 소유와 자산

비상금 소유정도와 자산보유율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나라의 거시경제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자산의 보유상태가 부동산이나 동산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비상금 소유정도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자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에 관련된 연구에서(계선자, 1990)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 및 전문직이고 결혼지속연수가 길고 생활비 지출계획도 주·월로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생활 패턴이 계획적인 가계일수록 총자산의 크기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 자산관리의 목적을 분류하면 조사자의 50%정도가 교육비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하여 하였고, 34.4%는 자신의 노후안정을 위하여, 8.5%는 부채를

값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자신을 위한 안정정보다는 자녀들을 위해 자산관리를 하는 경향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자금마련을 위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가계는 교육수준이 낮고, 월소득이 낮고, 숙련직에 종사하며, 생활비지출계획을 하지 않고, 주택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가계는 교육수준이 높고, 월소득이 많고, 관리 및 전문직에 종사하고, 생활비 지출계획도 주·월로 하고, 주택도 소유하고,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의 보유비중을 보면, 금융자산별 지니계수는 유가증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예금, 비은행 금융자산, 사채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각 금융자산별 보유비중을 보면 금융자산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계층의 점유율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다(김종천, 1992).

Smythe(1968)는 가계의 신용거래를 위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금 소유정도를 분석했다. 그는 가계의 비상적임에 대한 자료를 가정생활주기의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비상금 소유정도는 실직이 되어 수입이 없는 기간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연구결과에서 실직로 각 생활주기별로 볼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실직이 되어있는 동안에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Johnson 과 Widdows(1985)는 1985년까지의 Survey of Consumer Finance를 사용하여 3가지 다른 자산측정을 소개했는데, 이것은 기간별 구분을 한 것으로 단기, 중기, 장기 비상금 소유를 의미한다. 연구결과에서 대다수 가계의 경우 실직이 발생해서 수입원이 중단된 경우 소비지출을 유지할만한 충분한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 자료를 보면, 단 19%의 가계만이 축적된 자산으로 현 소득을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Prather(1990)는 소득과 연령이 유동자산과 월 소비지출액간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유동자

산액, 총부채액, 비 저당권(non mortgage), 순자산(net worth)을 포함시켰고 연간 부채상환액에 대한 비율에도 연령과 소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통하여 회귀분석의 지출추정액(predicted value)을 사용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가계의 경우 유동자산의 보유율이 전체 자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가계의 경우는 자산의 보유형태가 이와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거시 경제적인 요인이 자산보유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자산의 일부인 금융자산 보유실태에 관련하여 한국가계의 유동자산의 보유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로 총자산과 유동자산의 보유실태에 따른 영향변인 분석을 구체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6개월 비상금 소유정도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을 포함한 경우보다 가계의 비상금 소유정도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4) 비상금 소유와 관련된 저축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경제적 및 심리적 변인

비상금 소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축률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인들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문숙재(1985)의 연구에서 주부의 저축의식은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주택의 소유여부, 소득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져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무주택가계에 비하여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경우와 소득이 규칙적인 경우에 주부의 저축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계의 저축률은 가정생활주기가 형성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를 거치는 동안 감소하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계의 소득이 규칙적인 경우에 비해 비규칙적인 경우 저축률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 1985). 이계식(1986)은 1984년도 국민은행의 가계금융 이용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도시가계의 저축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부채잔고가 많을수록, 가계저축잔고는 많았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계저축잔고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정숙(1980)은 대구시 가구를 중심으로 주부들의 저축에 대한 의식 및 저축행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소득의 30%이내에서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의 11%에서 20%를 저축하고 있는 가구가 가장 많았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의 목적으로는 자녀의 교육비, 자녀의 결혼준비, 주택마련, 그리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등의 순서였고, 저축수단으로는 계와 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저축률에 관련된 연구에서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계저축률이 높아 20대가 34.8%인데 비해 50대는 1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축추진 중앙위원회, 1991).

Hanna, Chang, Fan과 Bae(1993)의 연구에서 연령이 25세미만인 가계중 6%의 표본가계만 6개월 비상금을 가지는 반면,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계는 39%나 6개월 비상금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상금 소유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가계의 경우 14%가 대출의 경우 41%가계의 6개월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비상금 소유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소득이 \$5000미만인 가계는 3%, \$50,000이상인 가계는 30%가 6개월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에는 은퇴한 가계가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는 37%, 전문직·관리직은 25%, 사무직·노동직은 10%였다. 용직 또는 기술직은 8%미만이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계의 형태로는, 결혼한 무자녀의 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33%, 독신가계가 24%, 편모가계이며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계가 2%로 가장 낮았다. 실증적 연구는 유동자산의 보유가 대부분 생활 주기 전반에 따른 자원이용 가능성과 축적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유동저축의 실제 필요성과 보유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

다.

한편 소득수준, 소득의 규칙성, 주택의 소유여부, 가정생활주기, 교육수준 등의 외적인 조건들 보다는 저축의 필요성, 경제의식, 미래전망 등의 저축에 대한 내적인 태도가 저축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문숙재, 1985). Lindquist(1981)가 스웨덴의 429가구를 연구한 결과, 가계의 저축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소득, 가족원 수, 생활주기변수는 유동자산을 축적 하는 정도와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 심리적인 가계의 특징, 즉 기대도, 경제적 만족도 등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도했다.

위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가계의 유동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수로는 소득, 연령, 직업, 교육수준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계의 6개월 비상금 소유정도에 연관 지어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 보기로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비상금 소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총자산에 대한 6개월 비상금의 비율을 측정하여 그 비율과 관련된 변인을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와 비소유 가계를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다.
2. 가계 비상금 소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다.
3.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와 비소유 가계의 소득방정식을 검증하여 소득 증가율에 의한 총 소비지출 증가율을 분석한다.

#### 2) 자료 및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관할하는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하였다. 총 표본 수는 6만여 가구이나 이중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가계를 제외하여 연구에 사용된 표본 수는 40,723이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측정하

였다.

- \*순 자산=총 자산-부채
- \*총 소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
- \*소득=가계소득:세금을 포함한 소득
- \*비상금 소유여부==6개월동안 총소비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 \*비상금을 소유한 가계=(총 소비지출\*6)순유동자산
- \*비상금을 비소유한 가계=(총 소비지출\*6)순유동자산

이외에 비상금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자산, 교육수준, 직업, 자가소유상태, 소득, 가족원수, 수입원수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포함시켰다. 이중에서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자가소유상태는 가변수로 처리되었으며 각각의 범주는 <표1>에 보고되었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 1) 비상금을 소유한 가계와 비소유한 가계를 분류하여 각각 회귀 분석하였다. 표준화 계수를 산정하여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독립변인의 영향력차이를 보았다.

종속변수(y):비율=6개월 비상금(총 소비지출\*6)/순자산

독립변수(x):소득과 자산을 빼고 표 1에 포함시킨 변인 모두를 포함 시킴

연구방법 2) 비상금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를 1로 소유한 가계를 0으로 한 종속변수에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경제적인 변인을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종속변수가 0과 1로 되어 있으므로 Weighted least square를 사용하였다. Weighted least square는 probability model로써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의하여 종속변수의 확률이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일반적으로 종속변인이 범주화 된 경우에 사용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비상금을 소유한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써

종속변수가 1 또는 0으로 표시되어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이 비상금 소유할 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결과를 논의할 수 있다.

종속변수(y):비상금 소유유무(비소유 가계와 소유 가계를 1과 0으로)

독립변수(x):소득과 자산을 제외한 표 1의 변인 모두를 포함시킴

연구방법 3) 비상금을 소유한 가계와 비소유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변수의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분석 검증한다.

종속변수(y):총 소비지출

독립변수(x):소득, 연령, 가족원수, 순유동자산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비상금 소유정도와 관련변수

비상금 소유여부와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값과 빈도는 <표 1>과 같으며, 전체표본과 비상금을 소유한 가계 또는 그렇지 않은 가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순자산 평균값을 보면 전체 표본의 순자산 평균액과 비상금 비소유가계의 평균 순자산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과는 달리 순자산이 많은 가계가 유동자산의 평균액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한국가계의 자산보유상태가 유동자산이외의 다른 자산의 형태로 더 많이 선호되어 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와 비소유 가계간의 총지출, 수입원수, 가족원수의 평균값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령은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36세로 비소유가계의 40세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자가소유상태의 가변수 항목별로 빈도를 보았을 때 위의 두 그룹이 그다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두그룹간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것은 다른 변인이 통제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평균값의 차이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겠다.

〈표 1〉 비상금 소유정도와 관련변수

관련변수	전체 표본	비상금 소유가정 (n=377)	비상금 비소유가정 (n=40346)
	평균값(편차)	평균값	평균값
순자산(총자산-부채)	573,005 (2,415,279)	12,811,130 (9,980,836)	458,664 (1,883,446)
총지출	1,249,466 (1,126,539)	1,150,381 (626,361)	1,250,053 (1,128,817)
연령	40.62(11.16)	36.68(8.24)	40.65(11.18)
수입원 수	1.42(0.78)	1.41(0.59)	1.43(0.78)
가족원수	3.76(1.17)	3.79(0.95)	3.77(1.17)
	빈도(%)	빈도(%)	빈도(%)
교육수준			
국민학교졸	12.3%	4.8%	12.4%
중·고등학교 졸	59.4%	58.1%	59.4%
전문대 졸	5.8%	6.1%	5.8%
대학 및 대학원	22.4%	31.0%	22.4%
직업			
전문직	11.9%	1.1%	11.9%
관리 및 사무직	27.2%	44.3%	27.1%
서비스	16.7%	5.0%	16.8%
생산 및 운수직	35.6%	42.4%	35.5%
자가소유상태			
자가	51.7%	25.2%	48.4%
무상주택	2.7%	3.2%	2.7%
전세 및 보증세	44.0%	68.2%	43.8%
월세	5.1%	3.4%	5.1%

## 2) 비상금 소유 가계와 비소유가계의 6개월 비상금과 순자산 비율분석

〈표 2〉에서는 종속변수를 비상금과 순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비상금 소유가계와 비소유가계를 구분하여 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는 동시에 독립변인의 영향정도를 비교하였다. 종속변수비율은 6개월 동안의 비상금, 즉 총지출에 6을 곱한 값을 순유동자산으로 나눈 것으로서 비상금을 소유한 가계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수입원 수, 연령, 그리고 자가소유상태에서 전세 및 보증세, 월세의 가변수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비상금 비소유가계의 비율에는 가족원수, 자가소유상태 가변

수준 전세 및 보증세, 그리고 교육수준에서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가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금 소유 가계와 비소유 가계의 비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가소유상태였으며 그 외의 다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비상금 소유가계와 비소유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상금 소유가계		비상금 비소유가계	
	표준화 계수	T값	표준화 계수	T값
수입원수	0.10957(3)	1.979*	0.00205	0.287
교육수준				
국민학교졸	-0.03922	-0.635	0.01652(4)	2.170**
중·고등학교	-0.05011	-0.858	0.03262(1)	4.337***
전문대	0.02997	0.546	0.00194	0.272
자가소유상태:				
전세 및				
보증세	-0.01294	-2.284**	0.02720(2)	3.592**
월세	-0.14123(2)	-1.839*	0.00403	0.560
가족원수	-0.16109(1)	-1.177	0.01779(3)	2.484**
연령	-0.10957(4)	-1.724*	0.00265	0.340
상수	0.00000	9.379***	0.00000	-0.341

\*\*\*p<.001, \*\*p<.05, \*p<.10

=표준화 계수 옆의 ( )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1로 다음을 2, 3, 4로 표기 하였음

## 3) 비상금 소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분석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표본수가 비소유 가계의 표본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귀분석의 계수추정에 오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Joint F Statistic으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 표본의 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그룹을 분류한 회귀분석과 동시에 포함하는 회귀분석 모두 회귀계수 추정에 문제가 없음이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비상금 소유 가계와 비소유 가계로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Weighted Least Square(WLS)를 사용하여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WLS는 dichotomy인 종속변수로 인하여 회귀계수의 오차



에 있어서 OLS의 한계점을 보완해 준다. 또한 WLS는 Logit regression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나 (Maddala, 1992) 회귀계수가 독립변수에 대한 한계 효과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log odd-ratio로 나타나는 Logit보다 해석상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WLS의 회귀계수는 독립변수 변화율에 따른 비상금 소유확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WLS의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종속변수가 비상금 소유와 비소유이므로 각각의 회귀계수는 비상금 소유 확률의 정도로 해석되어 진다.

<표 3> 비상금 소유 대 비상금 비소유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인	회귀계수	오차	T값
연령	0.000137	0.000103	1.332
가족원수	-0.003934	0.000757	-5.198***
총 소비지출	5.2928779e-8	0.000000	74.888***
수입원수	-0.001037	0.001338	-0.775
순 유동자산	-4.750935e-8	0.000000	194.063***
교육수준			
국민학교졸	-0.009888	0.003834	-2.579**
중·고등학교 졸	-0.007392	0.002351	-3.145**
전문대 졸	0.006923	0.003755	1.844*
대학 및 대학원	omitted		
직업			
전문직	omitted		
관리 및 사무직	0.006092	0.003210	1.898*
서비스	-0.005223	0.003858	-1.354
생산 및 운수직	-0.005712	0.002961	-1.929*
자가소유상태			
자가	omitted		
무상주택	-0.002680	0.004640	-0.578
전세 및 보증세	-0.016124	0.001898	-8.495***
월세	-0.002184	0.004526	-0.483
상수	0.997422	0.006316	157.921***
adjusted R <sup>2</sup>	0.5578		

\*\*\*p<.001, \*\*p<.05, \*p<.10

독립변인중 가족원수, 총소비지출, 순 유동자산이 비상금 소유확률과 관련된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교육수준 가변수중에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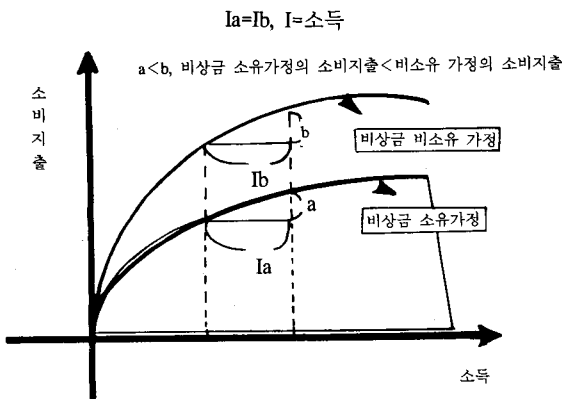
직업으로는 관리 및 사무직, 생산 및 운수직이 자가 소유상태별 가변수로는 전세 및 보증세 가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총 소비지출이 많을수록 비상금을 소유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이 많을수록 비상금 소유확률이 높게되어, 총 지출과 순자산의 경우 비상금 소유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교육수준별로 볼 때, 가장의 교육수준이 대학 및 대학원에 속한 가계에 비해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속하는 가계의 비상금 소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일수록 유동자산의 보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형태의 자산보유가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의 경우 더 많은 지출과 미래소득의 기대도가 높아 비상금 소유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직업별로 볼 때, 전문직 보다는 관리, 사무직이 비상금 소유확률이 낮으며 생산 및 운수직의 경우 비상금 소유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소유상태의 경우 전세 및 보증세의 경우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비상금 소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세나 전세의 형태로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가계는 비상금에 대한 요구도와 저축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안정된 재무상태로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유동자산 이외의 다른 형태의 자산 보유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비상금 소유 및 비소유가계의 소득방정식

다음으로 비상금 소유 가계와 비소유가계의 소득 방정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인을 총지출로 독립변인으로는 소득, 연령, 가족원수, 자산을 포함시켰다. 연구결과로는 비상금을 소유한 가계의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산이며 비상금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소득, 연령, 가족원수, 자산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에서 비상금을 소유하는 가계와 비소유가계간에 동일한 소득의 증가분에 따라 총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볼 때 비상금 소유가계의 소득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비상금 비소유가정의 소득 회귀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만을 비교해 볼 때 비상금을 소유하는 가정이 비소유가정에 비해서 동일한 소득의 증가에 따라 총지출의 증가분이 적게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소득방정식을 기반으로 비상금 소유가계의 경우 자산이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외의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한국가계의 경우 비상금을 소유하는 가계가 많은 부분을 자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비상금 소유가정과 비소유가정의 소득방정식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계의 유동자산의 보유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재무상담자들이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비상금 소유유무에 관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중요한 연구결과로는 비상금 소유가계와 비소유가계의 비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가소유상태였으며 그 외의 다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금 소유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로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문직과 관리직보다는 생산·운수직이, 자가를 소유한 가계보다는 전세 및 보증세

〈표 4〉 비상금 소유 및 비소유가계의 소득방정식

독립변인	비상금 소유가정		비상금 비소유가정	
	회귀계수	T 값	회귀계수	T 값
소득	0.013944	0.875	0.502189	111.7**
연령	646.0759	0.199	5339.052	12.04**
가족원수	19574	0.691	58345	14.68**
자산	0.034929	12.17**	0.084650	35.30**
상수	579182	3.741*	-54799	-2.58*
R <sup>2</sup>	0.3336		0.3069	

\*\*p<.001, \*p<.05

로 있는 가계가 6개월 비상금을 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금 소유가계와 비소유가계의 소득방정식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상금 소유가계가 비소유가계에 비해 동일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분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1991년 주부의 경제의식을 조사한 부분에서(저축추진중앙위원회)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78.3%)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응답했고,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우선 연구결과에서 전체 표본중 377가구만이 비상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유동자산의 확보가 극히 미약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가계가 대부분 자산형태를 동산보다는 부동산의 형태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저축에 대한 부가가치가 크게 하락되어서 소비자들이 유동자산 보유하기를 꺼려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계의 불안정한 경제환경속에서 소비자들이 유동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거나 또는 비상금 확보율이 적은 것은 어쩌면 자산증식을 위한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재무관리 실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비상금 소유확보가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

성과 연결이 된다면 미국과 같은 안정적인 국가재무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비상금 보유실태가 낮은 것은 가계재무안정도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으로 가계재정을 경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한국의 소비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하는 것은 비상시에 대비한 유동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됨으로써 불안정한 가계재정상태를 반영하게 되므로 가계재정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점은 비상금 소유실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다. 실지로 가정생활주기를 통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금 소유확보율이 낮은 것은 재무상담자의 역할이 부각되어지는 점이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비상금을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다른 자산보유형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플레이를 재조정하고 가계경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본 연구가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본다.

가계의 유동자산만을 포함한 본 연구를 토대로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에 대하여 각각의 영향변수를 비교하고 자산형태별로 보유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미래 연구에서 제시할 방향이다. 더불어 선호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그것을 보유하는 특정가계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구분해보는 것은 세금이나 금융에 관련된 국가 경제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비상금에 대한 총 소비지출 준비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미국가정의 경우를 참고로 하였으므로 이것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총 소비지출 준비기간을 한국의 경제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한다면 비상금에 대한 연구결과가 한국가계의 재무관리 개선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계선자 (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 및 관리행동

- 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1
- 2) 김종천 (1992).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분배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논문집, 12.
- 3) 문숙재 (1985).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연구원, 46 이화여자대학교.
- 4) 이계식 (1986). 도시가계의 저축태도분석. 석과 정종섭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동주여전.
- 5) 이민표와 채영숙 (1985). 저축, 소비에 대한 규범적 의식과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07-121
- 6) 이형숙 (1992). 가계저축증대와 소비건전 방안에 관하여. 경원전문대 논문집, 14
- 7) 저축추진 중앙위원회 (1991). 주부의 경제의식 및 저축환경조사
- 8) 채정숙 (1980). 주부들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대구시 가계를 중심으로. 한사전문대 논문집, 5
- 9) 최성열 (1984). 저축의식의 조사연구. 연구토론회 (세무대 조세문제 연구소), 2
- 10) Asinof, L. (1992). Paying down your debt can boost your returns. *The Wall Street Journal* V. LXXII(254), C1(October 9).
- 11) Bae, M.K. (1992). *Analysis of Household Spending Patterns*,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12) Dreze, J. & Modigliani, F. (1991). Consumption decision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5(3), 308-335.
- 13) Garman, E. & Fogue, R. (1991). *Personal Finance*. Boston, Mass:Houghton Mifflin Company.
- 14)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G. Langrehr(Ed.) *The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23-131.
- 15) Hanna, Chang, Fan, & Bae (1993), Emergency fund level of households: Is household behavior rational? *The Proceedings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9, 215-223.

- 16) Hey, J. (1979). *Uncertainty in Microeconom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17) Johnson, D. & Widdows, R. (1985). Emergency fund levels of households. In K. Schnittgrund(Ed.), *Th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1th Annual Conference*, 235-241.
- 18) Leland, H. (1968). Saving and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demand for sav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LXXII(3), 465-473.
- 19) Kinsey, J. & Lane, S. (1978). The effect of debt on perceived household welfare.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2(1), 48-62.
- 20) Maddala, G. S. (1992).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2nd ed.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21) Levhari, D. & Srinivasan, T. (1969). Optimal savings under uncertainty. *Review of Economics Studies*, 36(106), 153-163.
- 22) Lindqvist, A. (1981). A note on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s sav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 39-57.
- 23) Mirman, L. (1971). Uncertainty and optimal consumption decisions. *Econometrica*, 39(1), 179-185.
- 24) Prather, C.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69.
- 25) Salyer, K. (1988). The characterization of savings under uncertainty: the case of serially correlated returns. *Economic Letters*, 26(1), 21-27.
- 26) Sandmo, A. (1970).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saving decis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37(111), 353-360.
- 27) Sibley, D. (1975). Permanent and transitory income effects in a model of optimal consumption with wage income uncertain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1(1), 68-82.
- 28) Smythe, K. (1968). An approach to determine "safe" levels of family credit commitm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2), 167-181.